

시골 마을에 나타난 불청객

보름이 이야기(3)



하재영
팅커벨 입양센터 공보팀장, 작가

임시보호를 결심하다

보름이의 모낭충이 재발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뒤 수연 씨는 보름이를 임보(임시보호)하기로 결심했다. 구조된 지 2년이 지나도록 입양 문의 한 번 없는 아이지만 수연 씨는 보름이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믿었다.

‘내가 살뜰히 보살피면 모낭충도 완치될 거야. 온라인 커뮤니티에 보름이에 대한 글도 많이 올려야지. 그러다 보면 평생 가족이 되어줄 분들도 나타날 거야.’

수연 씨는 보름이의 임보를 앞두고 모낭충에 관한 자료부터 찾아보기 시작했다. 모낭충이 재발하는 가장 큰 원인은 면역력 저하와 스트레스라고 했다.

면역력을 키우려면 사료보다 자연식이 좋을 것 같았고, 자주 산책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았다. 수연 씨는 강아지 자연식에 관한 책을 읽었고, 산책 때 사용할 3미터 리드줄을 샀다. 폭신하고 안락한 방석을 준비했으며,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는 식재료도 샀다.

집 안에 보름이를 위한 물건이 하나둘 들어가는 것을 보며 수연 씨는 설레고 행복했다. 보름이에게 평생 가족이 되어줄 수는 없었지만, 이런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 보름이를 입양하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세 가지 과제

1월의 어느 날, 보름이는 수연 씨의 집으로 왔다. 기쁘고 반가운 마음도 잠시, 보름이는 집 안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설 새 없이 마킹을 하기 시작했다.

보름이는 입양센터 생활을 할 때도 다른 강아지들에 비해 유난히 마킹이 잦았다. 낮설거나 흥분되거나 불안할 때에는 말할 것도 없었다.

센터에서 여러 번 보름이를 만나면서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예상보다 더 심한 상황에 막막함이 밀려왔다.

수연 씨는 보름이를 데리고 서둘러 산책을 갔다. 영역 표시와 후각 활동을 실컷 하고 나면 실내에서 마킹을 하는 것은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산책을

다녀온 뒤에도 보름이는 그 정도가 조금 덜할 뿐 여전히 이곳저곳에 마킹과 배변을 했다. 걸레를 들고 하루 종일 보름이의 꿈무늬를 쫓아다니는 것으로 첫날이 지나갔다.

수연 씨가 보름이의 임보를 시작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것은 세 가지였다. 하나는 다른 강아지들에게 비해 유난히 심한 마킹 습관이었고, 또 하나는 역시 다른 강아지들에 비해 털 빠짐이 많다는 것, 마지막은 모낭충이 재발할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보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은 수연 씨가 이

세 가지 문제를 개선하거나 혹은 감당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첫날 이후에도 보름이의 마킹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매너벨트는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닐뿐더러 포피염을 앓고 있는 보름이에게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없었다.

수연 씨는 하루에 세 번씩 보름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 체력이 약한 수연 씨에게 하루 세 번의 산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보름이가 가정생활에 좀 더 적합한 습관을 가질 수 있다면, 그래서 입양의 기회가 좀 더 많아진다면 감수해야 할 일이었다. 그렇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에 3회 이상 산책을 한 덕분인지, 몇 주가 지나자 보름이의 마킹 습관은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2월 중순이 지나자 두 강아지의 털갈이가 시작되었다. 대형견인 만복이와 중형견인 보름이는 둘 다 단모종의 믹스견이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공기 중에 털이 푹푹 날리는 게 보였고, 가족들의 양말마다 검거나 하얀 털 뭉치가 고스란히 붙어 있었다. 푸들인 보리를 키울 때는 알지 못했던 또 다른 고역이었다. 걸레로부터 해방되는 게 싶었더니 이제는 청소기를 놓을 틈이 없었다.

수연 씨는 최선을 다해 만복이와 보름이를 돌보는 한편, 예전보다 더 꼼꼼하게 청소와 집안일을 하려고 애썼다. 쉽지 않은 일을 함께 감내하고 있는 남편과 딸아이들을 위해서였다.

봄이 가고 여름이 다가올 무렵, 수연 씨는 보름이의 다리에서 이상한 징후를 발견했다.

털을 헤집고 몸 이곳저곳을 살펴보니 등에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 있었다.

‘또 모낭충이 재발한 걸까?’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선불리 비판하고 싶지 않았다. ‘아닐 거야. 매일 열심히 산책했잖아. 음식도 면역력에 좋다는 것만 먹었잖아. 아닐 거야. 모낭충은 아닐 거야.’ 스멜스멜 불안감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면서도 수연 씨는 몇 번이고 그렇게 되뇌었다.

하지만 다음날 병원에 갔을 때 보름이는 또 다시 모낭충 판정을 받았다. 설상가상 곰팡이성 피부염까지 진행 중이었다. 진단 결과를 들었을 때 수연 씨는 동물병원 원장님 앞에서 울

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몇 달 동안 보름이를 위해 해왔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듯 허망한 기분이었다. 모낭충이 재발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자신했던 것이 부끄럽기도 했다.

“보름이 보호자님께서 정말 최선을 다하셨어요. 제가 압니다.”

원장님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수연 씨는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 같았다. 치료가 끝난 지 몇 달도 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 더욱 참담했다.

보름이를 위해 해야 할 마지막 일

수연 씨는 현재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보름이를 임보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그 순간순간을 어떻게 넘겼던가 싶기도 하다. 중대형견인 보름이와 만복이를 데리고 하루에 2,3회씩 긴 산책을 했던 일, 네 가족의 식사는 물론 매 끼니 보름이를 위한 자 연식을 만들었던 일, 피부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자 서툰 운전습씨로 왕복 네 시간이 걸리는 한방병원을 다녔던 일, 거기다 여전히 세상이 두려운 만복이의 훈련까지.

만복이 보름이와 함께 하는 동안,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었지만 그때는 힘든 줄도 몰랐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기쁘게 견디는 일’인지 모른다. 힘든 일을 힘든 줄 모르고 하는 것, 두 마리의 유기견이 수연 씨에게 알려준 사랑은 그런 것이었다.

보름이는 여전히 수연 씨와 함께 하면서 평생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

보름이에게 좋은 입양자를 찾아주는 것과 웃는 얼굴로 보름이를 떠나보내는 것. 그것은 수연 씨가 보름이를 위해 해야 할 마지막 일이자 가장 어려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수연 씨는 알고 있다. 그 끝이 이별이라 해도 자신은 보름이를 위해 또 한 번 ‘기쁘게’ 견딜 거라는 것을. ☺

